朝鮮日報
第二夕刊 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第二日의 貴族院會議
政府態度는 不徹底
要는 議會中心主義
大河內子의 猛烈한 攻擊質問

【東京電話同盟】二日의 貴族院本會議는 佐佐木副議長이 議長席에 着席하여 午前十時十四分 開會하엿는데 前日에 이어서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疑를 續行

大河內輝耕子 (研究) 登壇

淺間丸事件에 關하여

一、國際法의 解釋如何
二、이런 疑惑잇는 獨逸人을 乘船시켯는가
三、船長에 對한 指令을 發하엿는가
四、出港當時 獨逸人의 乘船을 알고 잇스면서 왜 軍艦으로 護衛치 안햇는가
五、今後乘船의 資格을 如何히 定하려는가

有田外相

一、法律上 見解相違에 關하여는 我方의 見解는 어데까지 國際法上에 根據가 잇는것으로 잇는다 英國은 그見解를 公文으로써 提示해왓스므로 이에 對하여 一日 我回答公文을 手交하엿다 公文은 兩國協議後 發表할려이다
二、이런 獨逸人에 對하여 拿捕抑留할수업는것으로보고 乘船을 拒否치 아니햇다 僞名의 事實은 全然업다
三、歐洲戰亂勃發當時 關係者로부터 臨檢、拿捕가 잇슬時에 取할 臨機의 措置에 關하여 指令을 發해두엇다 無意義의 紛爭은 일으키지 안토록 注意하여 愼重히 處理하도록 해두엇다

吉田海相

이런 事件은 먼저 外交交涉에 맥길것으로서 交涉에 期待할수업슬時에 海軍으로서 取할 適當한 措置에 關하여는 準備와 用意를 가지고 잇는데 實力으로써 當할지는 只今은 말할수업다

大河內子

國交調整에 對한 外相의 所信을 質問하자

有田外相

外交方針의 根本은 一日의 演說中에서 다 말하엿다 東亞의 新秩序建設도 東亞의 安定을 圖하여 나아가서 世界人類의 平和를 期하려는것이다 國際關係는 모두 根本方針에서 出發하고 잇다 各國에 對하여는 어데까지 正正堂堂히 確固한 決心을 가지고 臨하고잇다 防共에 對하여는 大河內子와 見解를 달리한다 어떤 問題에 對하여는 歷代外相이 言明하엿는데 이것은 我國外交의 旣定方針이다

米內首相

新政權에 對하여는 帝國은 援助協力을 不惜하고 成立을 促進시키고 십다 當面한 貿易內容에 對하여는 適當한 機會에 適當한 諸國에서 對答하려한다

大河內子

內外重要問題 山積한 今日 政府의 態度는 一定치 아니하다 今日까지의 施策은 勿論 議會에서의 答辯도 徹底치 못하다 獨善을 排擊하고 國民의 輿論을 들어 議會中心主義로 나가주기 바란다 革新政治는 참으로 그 核心을 잡어가지고 하여야된다

米內首相

積極的으로 힘잇게 나갈려는 覺悟이다

內藤久寬氏 (研究)

政府는 石油의 增産을 絶對로 實施해야된다 石油에 依한 世界政策을 樹立하는것이 急務이다 이때문에 政府는 石油生産에 對하여 明確한 豫測을 세워가지고 根本方針을 樹立하지 안흐면 안된다 我國의 油田은 處女地가 만코 石油事業의 將來는 洋洋한바가 잇다 埋藏된것의 發見에는 科學의 힘을 總動員하지 안흐면 안된다 政府는 官立의 石油調査機關과 技術者養成機關을 設하여 石油對策의 萬全을 期하기 바란다

라고 逼하고 時間形便上 關係閣僚의 答辯을 三日로 延期하고 午後零時十四分 散會하엿다 (寫眞은 大河內子)

發言順位와 民政黨態度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二日 午前九時半부터 院內에서 院內

平凡한 再開議會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第一日은 一日午後衆議院本會議劈頭에 質問順位에 關하여 政黨間에 異論이잇서 午後一時 開會豫定이 三時지나서 겨우開會되엇는데至今까지의 慣例로는 民、政、民 政의順으로 되어던것을 今年은 分裂한政友會를 나누어서 民、政、革、民、政正의順으로 豫定하엿든바 開會直前에와서 正統派로부터 세番재로당겨달라는 强硬한提議가잇섯 데 民政黨은 半分으로쪼기면 政友正統派보다적 으므로 民政의 二人채의 代表가 正統派보다 먼저나설資格은 업다는 理由로 서로 다투엇다 如何間初日은 民政黨의 小川鄕太郎氏만이 서기로하고 그後는 閉會後로 延期하기로되어 겨우三時五分前에 振鈴이 낫다 初演說의 米內首相은 午前中의 貴族院에서와 가튼 演說을 如前히 悠悠한 態度로 二十分 大臣席에 돌아가서 海相時代와 가치 端坐瞑目하여 甚히 擧動이 方正하다 有田外相의 外交演說에 繼하여 櫻內藏相의 財政演說은 政黨出身 關係로 소리도놉고 態度도또한 演黨이나 內容은 期待에어그러저 平凡하기 그지업다 三大臣의 施政演說에 이어 畑、吉田兩軍部大臣의 戰況報告가 잇섯는데 모두들 이것만은 하고 議員諸公이 配布된 戰況地圖를 펴노코 說明을 듯고잇섯다 畑氏의 목소리가 쉬면 「들리지 안소」하고하는 소리가 난다

▲이날 名物인 政黨側의 質問演說 第一陣인 民政黨의 小川鄕太郎氏가 拍手로 마지되어 登壇 政府의 施政을 하나식 反駁하고 잇섯스나 조금도 힘이 업섯다

▲小山議長의 소리에 따라 答辯하는 米內首相의 初答辯은 滿場의 期待를 떠고잇섯스나 危險한 다리는 건느지 안흐려는 態度로 언제지 不安하고 도 놀랜듯한 모양이어서 議席으로부터는 「야지」가 일어나고 잇다 「官僚組織에 依한 經濟統制가 不完全하다는 點에 對하여는 …」하고 송細한 이얘기를 시작하엿는 米內氏는 必要치 안타고 생각하엿든지 「남어지는 다른 閣僚로부터…」라고 꼿막고 退陣

▲靈力問題를 물고이러선 勝選相、議場에는 의어슬 터인데 大臣이 되고보면 答辯은 지 크다란 종이에 쓴 草稿로써 적은 數字

▲그다음 ...

大戰과 빨칸動向
協商國會議開幕
二日부터 유國首都에서

【新京二日發同盟】빨칸四國의 中立維持 今次大戰에 하는 四國의 協力을 議할 빨칸協商會議는 當番國 유고·슬라비아의 首都 베오그라드市에서 二日부터 유고·슬라비아、羅馬尼亞、希臘、土耳其等 四國外相出席下에 三日間에 亘하여 開催되는데 그 推移如何는 歐洲大戰에 미칠 影響이 決定的인 만큼 자못 注目된다

006413

빨칸戰火擴大防止
獨립벤트롭프外相言明

【伯林一日發同盟】中南歐諸國은 戰火의 빨칸方面에의 波及을 念慮하여 對策을 日夜苦慮하고잇는데 리벤트롭프獨外相은 一日希臘新聞의 特派員과의 會見에서 獨逸은 빨칸까지 戰爭을 擴大할 意圖는 全然업다 「빨칸에의 戰爭威脅擴大를 防止하고자 가진努力을 다하고잇다」고 言明하엿다 한다 右會見記는 二日빨칸協商國會議의 開會와 同時에 公表될 模樣이다 (寫眞은 리外相)

質問戰第二日

【東京電話同盟】再開第二日의 議會는 前日에 繼續하여 國務大臣施政方針演說에 對한 質疑續行으로 戰時體制에 對한 總括的 批判의 序幕이 展開되고 먼저 ...

蘇蒙代表歸國

【新京一日發同盟】滿蒙國境劃定委員會哈爾濱會議에 出席한 蘇蒙側代表는 三十一日午前八時五十五分發臨時列車로 歸國하엿다

蒙古高原
陸鷲猛擊開始

【蒙古前線○○卅一日發同盟】白一色이된 蒙古高原에 敵을 차저 出動한 陸軍飛行隊山口部隊는 卅日午前十一時十分 五原北方烏拉溝를 同地로부터 東方을 急襲하여 ...

華北洋灰會社創立

【東京電話商通】北支產業振興 ...

汕頭北方敵潰亂
僅一日로 目的達成

【汕頭一日發同盟】汕頭北方韓江 山岳地帶에서 再次冬季攻勢를 보이고잇든 敵第六豫備師約五百은 三十日朝來 我○○、○○兩部隊의 勇猛果敢한 攻擊에 견디지 못하여 드디어 同日夕刻에 어르러 天險을 利用하여 가지고 堅固한 陣地를 버리고 西方으로 潰走하엿다 따라서 我軍은 겨우 一日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엿다 本戰鬪에서의 戰果로 判明된것은 敵遺棄死體六十六、捕虜十七、鹵獲品 重機銃一、其他 多數

米의 芬蘭援助로
駐米蘇大使抗議

【華盛頓一日發同盟】駐米蘇大使 우만스키氏는 一日國務省으로 國務長官을 訪問하고 三十分餘나 會見하엿다 會見內容에 對하여는 兩者가 모두 緘口하고잇는데 消息通은 우만스키大使는 다음諸點에 抗議한것으로 보고잇다

一、蘇聯의 對芬行動에 對한 米國非難
一、米國의 對芬援助
一、航空機用材料의 對蘇禁輸의 實施
一、丕生商務官이 지난一月十九日經濟協會席上에서 한 對蘇演說

租界隔絕强化는
歪曲된 虛報
도로혀 寬大한 措置

【天津一日發同盟】當地駐在의 英米通信員及 米國商業會議所는 在留邦人은 最近日本側이 「英佛租界의 隔絕을 極度로 强化하엿다」고 歪曲된 惡質의 通信을 本國에 打電하여 故意로 對日感情을 惡化시키고잇는데 事實은 全혀 反對로 日本側으로서는 水害를 契機로 一時中止한 英佛租界로 하여 通電과 電線의 送電을 그 前대로 다시하엿스며 租界內 第三國人에 對하여는 適用을 가지고 取扱하고잇다 그 一例로서는 一月中旬부터 米國人婦女子에 對하여 簡易通行證을 發給하여 現在이미 數十

定期叙位

【東京電話同盟】定期叙位는 宮內省에서는 吉田厚相以下二千百廿八名의 文武官及 華族에對하여 一日 定期叙位의 御沙汰를 하시옵섯다 그主要한者는 다음과 갓다

厚生大臣 從四位勳三等	吉田 茂
遞信大臣 正四位勳二等	勝正 憲
商工大臣 勳三等	藤原銀次郎
鐵道大臣 正五位勳三等	松野 鶴平
叙從三位(各通)	

在支外國投資問題
實際的形式如何
外相演說과 各國輿論
英國各方面의 見解綜合

【倫敦一日發同盟】一日倫敦各紙는 有田外相의 外交演說에 對하여 比較的簡單한 要約을 揭載하고잇는데 官邊方面에서도 全部 言及하지 아니햇스므로 批評을 避하고잇는 模樣이다 그러나 各方面의 見解를 綜合하면 大要다음가튼 外相의 主張하는바에 若干의 疑問을 품고잇는 模樣이다

一、對支政策에 關하여는 何等 새로운 要素는 認定되지 안호나 速히 和平克服의 決意를 表明한것을 歡迎하고잇다

一、有田外相은 支那에서의 第三國의 經濟的權益을 支那에서 排除하지 안흘뿐아니라 純經濟的性質의 것인限 第三國의 投資와 通商은 歡迎하려 한다고 述하엿는데 實際問題로서는 어떤 原則으로 如何한 形式으로 適用되고 또 如何한 企業이 純經濟的이라고 認定할것인가 問題로 하고잇다

一、日米關係에 關하여 言及한 大部分은 極히 協調的인데 日本은 北樺太利權問題와 蘇聯의 對蔣援助에 不滿을 품고잇스면서 日蘇關係는 漸次改善되어잇다고 述한것은 注目할만하다

이 純經濟的이라고 認定할것 單集結이 오직世界의 注目을 끌고잇는것이 現歐洲戰局의 金집업는 眞狀이다 그러고 他方에 잇서서는 루마니아에잇서의 英獨石油戰線을 中心으로하여 의政局行進이 자못 複雜한데 가잇고 또이것을 資源地로하여 颱風이 이러날한 空氣도 充分히 釀成되어잇다 一方에잇서 이외가치 暴風前夜에 다다른 英佛獨은 各各가지가지의 外交技巧를 다하여가지고 伊太利와의 接近工作을 進行시키고잇스며 또 한便으로는 近東方面工作도 매우 累累緊密한바가잇다 한마디로 하면 歐洲情勢는 世紀的複雜奇怪한 歐洲戰線의 將來는 果然 어떠케될것인가 傳하는바의 春期大會戰은 果然언제일까 마지노、지그프리드 兩大戰線에 對陣하고잇는 數百萬의 英佛獨兵은 銃소리업는 戰線에서 오직 하품을 하고잇슬뿐이다 게다가

現狀維持排擊當然
伊太利各紙大歡迎

【羅馬一日發同盟】一日의 有田外相의 議會演說은 當地朝刊各紙에 大大的으로 報道되어 메프사제로及 피코로兩紙는 「防共政策에 關한 확고한 確認」이라고 報道하고 잇다 政府側 政界方面에서는 一般으로 日本의 政策不動을 歡迎하고잇다 한現狀維持政策에 戰爭이이러난 것이다 有田外相은 現狀維持政策의 時機를 捕捉하엿다」라는 表現을 하고 잇다

春季大會戰

【倫敦經濟特電】本年春期 西部戰線에는 단한번의 衝突일세도 업시 被國戰線과 英國地方에의 ... 年은 十數年來의 酷寒으로 해잡조차 잘자지못하고 잇는데 歐洲를 괴우려하여도 敵에게 發覺될까바 어것조차 못하고 잇다 그러라고 서언스럽게 얼는 猛烈한 攻防戰이라도 잇섯스면하련만 그러치도 못하며 오직 하품과 士氣沮喪의 奇現象이나 타나고잇슬뿐이다 이現象에 意氣沮喪한것은 英獨이 一般이지 만 特히 英佛當局에서는 그對策으로 戰線에 女優와 歌手들을 보내여 陣中慰問을 시키고잇다

이제 二月도 다 지나와서 벌서 春期大會戰의 時期도 目睫間에 切迫되엇다 大會戰을 에워싸고 가지가지의 消息이 亂飛하고잇는데 「獨逸은 어데에 着陸距離二百五十키로의 巨砲를 發見하엿다」 「獨逸은 北海프리잔 列島에 飛行基地를 建設하고잇는데 이곳은 獨領과 英本土와의 最短距離의 地點이며 英國東海岸과는 三百五十마일 倫敦과는 三百五十마일밧게 안된다」等等 이러한 消息이 亂飛하고잇는 英國에서는 最近國民에게 意味深長한 警告를 하고잇다 「獨軍은 한번 占領한다 ...

불、에 兩元帥投獄

【紐育三十一日發同盟】三十一日 歐洲로부터 紐育에 達한 U·P 電에 依하면 芬蘭軍이 捕獲한 蘇聯의 크中에서 册子 卷이 發見되엇다 그 册으로 判斷하면 失脚을 傳하고잇든 極東軍司令官불헬 元帥는 現在 牢獄에서 呻吟하고 잇는模樣이다 그 證據로는 그 册에는 불헬 將軍의 寫眞을 붓치고 그미테 鉛筆로 「너는 監獄에 들어갓다 一生을 그곳에서 보낼것이다」라고 씨어잇다 또 그 册의 다른 장에는 元參謀長에고로 元帥의 寫眞이 부터 잇는데 赤色 鉛筆로 「너는 監獄에 들어갓다」라고 씨여잇다 그리고 어떤 册은 蘇聯赤軍圖書館所有라는 刻印이 잇섯다

廣西皇軍續續進軍

【南寧一日發同盟】南寧東北地帶에서 展開된 我空陸精銳部隊의 包圍殲滅戰은 我方에 有利한 戰勢로 着着進展中이다 即 南寧東北方 六十키로 永淳附近으로부터 賓陽에 進擊을 開始한 有力部隊는 一日午後四時頃에 그地方 古城寨를 包圍하고 東南方高地에 進出 約一千의 敵에 對하여 猛擊을 加하야 敵은 遂亡 하는 敵을 追擊하여 ○○으로 進擊을 開始하엿다 또 鬱江左岸을 南進한 竹園部隊는 昨三十一日 午後零時 七十六師所屬의 依據하여 頑强히 抵抗하는 賓陽東方의 堅陣에 肉迫突攻하 야 드디어 이를 奪取하여 猛追 中인데 敵遺棄死體七百을 下치 안한다

한편 南寧 我陸鷲는 空中의 協力下에 武陵附近에 襲擊을 加하고 更히 賓陽南方의 敵軍을 猛爆 哨部 大陸 ...

永淳附近戰進捗

【○○基地一日發同盟】我南支軍 ...

專賣局長官에 花田氏

【東京電話同盟】勸業銀行理事에 就任하려고 退官하는 大藏省專賣局長官荒井誠一郞氏의 後任補充에 關한 大藏部內의 人事異動은 銓衡한 結果 內定을 보게되엇스므로 一兩日中 左와 如히 發令될것이다

專賣局長官 橫濱稅關長	花田 政春
任橫濱稅關長 大阪稅關長	小宮 陽
任大阪稅關長 大藏書記官(主計局關稅課長)	尾關 將玄
任大藏書記官 企畫院書記官	秋元 順朝
命關稅課長 專賣局長官	
依願免本官	荒井 誠一郞

鮮銀新舊
副總裁近近入城

이번에 鮮銀副總裁에 任命된 君島一郞氏는 二月十日頃 新任入城할 豫定이며 이와同時에 新任入城할 前副總裁 松原純一氏는 ... 大藏公森太郞氏는 形便에 依하여는 ... 것이 될 模樣이다

八面鋒

◇ 豫算實行은 愼重檢討結果 어느程度의 豫想이 섯다. 藏相의 答辯.

◇ 百三億의 大豫算, 實行自信如何? 이것은 小川氏의 質問第一彈.

◇ 크나큰 建設事業豫算實行에 어느程度의 豫想으로 되것슨 좀 더自信을가저주오.

◇ 政府는 國民生活安定을 保障한다 그러나 具體的方法은 말할수업다고, 藏相의 第二答辯.

◇ 國民生活安定方法은 무엇이냐, 이것도 亦是 小川氏의質問.

◇ 臨時輸出國境制定委員會는 前後四十餘日間 겨우 雙方意見 完全對立 意見으로써 終了.

◇ 原則은 대체로 말만하여도 조치만 大體具體的方法은 누구하고 어떻게하려오.

◇ 雙方만 한國境問題가 以後의 經驗, 次第에는 써먹게.

人事·集會

▲金麟伊氏 (每申政治部長兼社會部長) 同上
▲金永珪氏 府內安國町一〇一番地 自宅에서 各月三十日別世
▲金科奉氏 江陵邑金谷町二五番地令弟 金仁杰方에서 二月一日遭內艱
▲川島輔軒總裁 一日午後一時半京城驛發 北朝鮮에 出張
▲柳光烈氏 (每申編輯局長) 新任人事次來社

歐米政局月誌

一月一日 米國長官... 聲明 日蘇漁業暫定協定調印
二日 英首相...
三日 獨蘇通商條約一週年記念... 蘇政府發表 ▲米大統領一般敎書發表 ▲獨人射殺事件 ... 抗議文提出
四日 匈牙利外相... ▲蘇聯...

櫻井製
旗印の七福ナイフ
旧名 旗印の七德ナイフ
登錄商標

注意
最近當所의 포스타―並케―스宣傳物의 一切를 利用하고 가짜품을 販賣하는 惡商人有함. 사실때는 特히 旗印의 刻印에 注意해주십시요.
當所發賣商品에는 現品은 勿論케―스 一切에 반드시 旗印의 마―크 有함 指定하셔고 사주십시요

七大特長內에 마개빼는것 유리잘느는것 二種有함

ニセモノ アリ 旗印ニ 御注意

全國데파―트 各金物店 文具店에 有함 品切時는 直接注文해주십시요!! 金一圓二十錢(送料共) 代金은 切手도 用可

朝鮮總代理店 柳原商店
京城府內需町三七

教室不足에對한府當局의臨機策

講堂、特別教室을代用
二部制는繼續實施
年內로新築增築工事竣工督勵

신년도경성부내의 공립소학교의 교실난문제는 총합수용백오십이학급(신입학생이백사십사학급 고등과 여덟학급)에 대하여 현재의 교실총수는 오백삼십오개밖에는 더못되어 결국 이이상 신증축등 다른변통이 없다면 교실부족은 일백십칠학급에 달할 형편임으로 부학무당국에서는 문제를 중대시하고 여러가지로 그보충책을강구중인데 여기대한 부당국의 계획을보면 대체로 아래와같다 즉 신축중이던 창경(昌慶) 청량(淸凉) 대현(大峴)등 각소학교의 신축공사가 이지음 대략완성되었스므로 부속교실이백십칠학급수가량은 이로써 충당할셈잡고 기타는 강당과특별교실을 임시응변으로 교실에대용하는한편 오전、오후의이부교수제를계속실시하여 급한고비를 넘기기로하는한편 신설학교의 신축공사와 기설학교의 교실증축을적극적으로 진행시키기로하여 종암(鍾岩)등 신설개교의 교실공사는 물론이고 삼청(三淸) 공덕(孔德) 마장(馬場) 북아현(北阿峴)등 신설교의 신축공사는 어떠한 장해가있더래도 기어히년내로 완성시키고저 방금 영선과(營繕課)에 공사의촉진을 독촉중이다 부학무과의 계획대로 신축증축계획이 진행된다면 신년도안으로 도합일백삼십사개의 교실을 얻게될터로 이러케된다면 신년도의 총합급수인일백오십이학급전부를 수용하고도오히려 열일곱교실은 남게될모양인데 자재난이심한 현재 이여러공사가 부당국의주문대로진척될는지가염려되는점이다

春窮期걱정업다

外國米廿萬石、滿洲雜穀百萬石오기로決定
愁眉를펀農林當局

조선쌀은이십만석이나 보내는데 약속하였든것은 내지에서도만주에서도 한섬도오지아허 한달동안 !!식량참모본부!!(食糧調査本部)농림국을조조케하더니이월중에는잡곡이약속대로들어오게되어 춘궁기(春窮期)를압두고 수미를펴게되었다 一오든 시월까지의 십오미곡연도(十五米穀年度)에 내외지를통한 식량수급책에의하여 작년말 농림국과 농림성、만주국사이에 조선쌀을일백오십만석내는대신 내지와만주에서 합계삼백만석의잡곡을드려오기로 약속이성립되어 조선에서는 작년말에 이십만석의쌀을내지로 보내던것이다 그러나금후 잡곡은 아무데서도 오지안어 농림국에서는 약속위반이아니냐고 여러번독촉한결과수일전내지에서는 잡곡은 힘드니 대신 외국쌀(外國米)이십만석을 사서 이월중순에는 돌려어서보내준다는 회답이왓고 만주국에서는 여부런농무사특산과장(農務司特産課長)송정교게(松井孺介)씨를 총독부에보내어 타협한결과 만주양곡회사(滿洲糧穀會社)에서 잡곡백만석을 삼주에걸게되었음으로 이월중에는 들어어서보낸다는 회답을하엿다 이것만들어오면 위선춘궁기는 걱정업다고 !!식량참모장!!탕촌농림국장(湯村農林局長)은 자신만만이다

南總督第一線에

春窮期克服運動에出動

농촌의 춘궁기를압두고 삼사월이 족한해대책에 가장중요한시기이므로 이난관을 전조선관민이 총동원하여 돌파하자는남총독의 지시에의해서 총독부농림국에서는 이의적절한 극복운동의 구체적방책을 고구중이던바 요지음 그원안을 어덧스므로 탕촌농림국장은 이일오전열하시 남총독에게 이원안을 설명하고 실시에대한 지시를요구한결과드디어 이상원안에 남총독을 진두에세우고 총독부관계국과장을 비롯하여 한해지의 식량대책실지상황에대하여 현지에서 총동원하여 식량대책의 제일선에서서 각지농촌에、호소하기로되었다

運轉手卽死로

前後事情이未詳

被害者遺家族에게對하여는充分한考慮
京春트럭慘禍事件會社側調査

경춘(京春)『트럭』과 급행렬차 충돌사건에관하여 이일경오현재 경춘철도여객 자동차부에드러온 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죽인일은 연천(漣川)에 장이서는날인데 이날연천을 떠나 왕징면(旺澄面)방면으로 가는 여객『뻐스』는 오후 네시삼십분에 마지막 차가 떠나고 마침 빈『트럭』이 연천시장 부근을 통과하여 왕징면으로 가려고할때 장에왓든사람들이 와-달려들어『트럭』에올라탄것이다 그리고 이번사고에관하여 경춘철도회사 여객자동차부장 수도(手島)씨는 다음과가치말한다

운전수가 즉사하여 자세한사정은 알수업스나 회사로서도 지금 사고계원을 현장에보내서 조사중인데 조사가끗나는대로 피해자의、유가족에게대하여는 충분한조의를 표할생각입니다 사고가이러난 순간의 상황은 지금까지에 드러온 보고를보면 자동차의『엔진』부가 기차에부드치며 산산히 부서진것갓습니다 하여튼 회사로서는 이유여하를 물구하고 면목업는 일입니다

絕命、重傷者氏名

동승자와 사망자들의 주소씨명은 아래와갓다

▲入院後死亡者
漣川郡旺澄面北三里 慎貴姬(三)
同郡同面同里 氏名不明女子未詳
▲途中死亡者
住所氏名不明 女子未詳
▲重傷
漣川郡漣川面車灘里 金德胤(三)
同郡同面同里 金點成(三)
高陽郡崇仁面正谷里 李基源(三)
漣川郡旺澄面北三里 朴石吉(三)
同郡同面洞內里 金鉉鎭(三)
同郡同面洞中里 慶眞五(五)
同郡同面同里 馬錫煥(一)
同郡同面北三里 李元建(一)
同郡同面同里 李令奉(三)
同郡同面高旺里 崔在啓(四)
同郡同面同里 新日成(四)
同郡同面北三里 馬鶴九(一)

즉사자 다섯명가운데 운전수이귀석(李貴碩)외 네명의주소씨명은방금연천경찰서에서조사중이다

明日로迫頭한 女子氷上大會

昨年覇者梨專軍에게
京保軍雪辱을劃策!
淑明女專과中保의活躍期待

待望의 第八回 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 明三日 午後一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白熱的人氣속에 열리게되었는데 高女部의 戰前豫想은 이미記載하엿거니와 이에興味津津한 一般部의 豫想記를 紹介하기로하자!

昨年大會에는 連戰連勝하여凱歌를 노피불럿스나 孫仁實 金炳烈兩主力選手를보낸 梨專陣은 오직 스프린터-蘇貞淑이母校의 名聲을 등어지고 孤軍奮鬪할터인데 雪恨의意氣에 불타는京保軍은徐丙琰、韓于惠仙、金光珠等諸選手이戰前부터 梨專軍을威壓하고잇서 京保의黃金時代 再現할것이다 初出場의 淑明女專軍은 勝利를엇기보담도 오히려 女子體位向上을위한『리-더-』가되려는 크다란 希望과抱負를가삼에품고 快히戰禍을征服하며 꾸준히 練習할터이라 豫想을飜覆시키고 意外의快成績을 거두을는지도모르나 初試驗이라 明年을 期待하는것이 順當한豫想일것이다 一年히 이大會에參戰하는 中央保育은 朴順寶、金順實兩嬢이가까운 漢江氷盤을活舞臺로 不斷不屈의精進을 할터이라 期待는잡못크다 이날에參加한 六個校 三十三名의 役員들의 熱戰은 滿都 팬에게스케-팅의 『스릴』을滿喫케할것으로 長安의 關心은 오로지 淸凉里링크로 集中되고잇다 (寫眞은 上으로부터 京保、梨專、淑明女專、平壤西門高女、中保諸氷上팀)

大會最高記錄

二百五十米 徐丙琰(同德) 二三秒二
五百米 金炳烈(梨專) 一分三秒五
千米 孫仁實(梨專) 二分三三秒八
千五百米 田代(龍谷) 三分三三秒
千六百繼走 龍谷팀 三分三?秒

朝鮮陸協事業案

全朝鮮陸上競技協會에서는 지난一月三十日에 新年度第一回幹事會를열고 役員과事業案을 다음과가치決定하엿다

◇役員 會長 伊森明治 副會長 日野春吉 東村重正 幹事長 木村一夫 會計幹事 小西太郎 幹事 木村(大林組) 小西(遞信局) 鄭商燮 中出(鐵道) 北岡(京師) 網干(鐵道) 相原(淑明) 山本(鐵道) 松田(鐵道) 月野(鐵道) 原崎(京師) 朝倉(遞信) 山本(鐵道) 大澤(地方) 秋葉(地方) 木村
▲專門委員會委員長 (技術)木村 (審判)倉 (檢定)月野 (財務)坂野 (普及)相原 (情報)小西 (記錄)小西 (女子)

◇事業案
三月十一日(祭) 昭和十四年度朝鮮優良選手表彰
四月三日(祭) 第八回京仁間驛傳競走
四月下旬 練習會(男子) 全日本選手權朝鮮豫選會
六月上旬 第二回全朝鮮實業團對抗競技會
六月下旬 第五回一般對學生對抗競技會
七月中旬 地方巡回指導
八月中旬 第三回鮮滿對抗競技會
八月下旬 練習會(女子)
九月下旬 明治神宮大會朝鮮豫選會
十月中旬 朝鮮神宮奉贊競技大會

明治神宮氷上大會 第一日

劈頭五百米에 安君겨우六着

朝鮮軍은三千、五千에有望

【東京電話同盟】戰時下靑年의意氣와힘을 明治大帝의御前에 바치려는 第十回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의 第二次스케-트競技는 二日午前九時부터 上諏訪參拜링크에서 第一日의幕을열었다 이 大會의 開幕式에는 天陽光은 微風이불러 링크의 컨디슌은 良好한편이다 定刻링크의周圍에는 現地警防團、在鄕軍人、愛國、國防兩婦人會、諏訪中 小學校生徒들이 整列한가운데 代表役員을先頭로 北海道、東北、關東、東京、中部、關西、朝鮮、關東州、滿洲의各地域代表選手役員은 各己隊旗를捧持하고 링크를一周하여本部前에整列하자 開會式에옴겨서 友末厚生省體育課長의開會辭、國旗揭揚에뒤이어 役員代表의 宣誓 奉安殿에奉迎하고 國歌奉唱、宮城及明治神宮遙拜、戰歿將士의英靈에對한默禱、出征將士에 對한武運長久祈願、總裁宮殿下

▲男子五百米決勝 (타임은 초)
1、關部(明大)四四秒二 (今年度最高記錄)
2、內藤(滿洲)四四秒三
3、山下 勝久(早大)四四秒四
4、高林(明大)四四秒八
5、三代 正慶(滿洲)四五秒一
6、安 重 熙(朝鮮)四六秒一
6、山本 宏之(滿洲)四六秒一

▲氷上하키-滿洲對朝鮮戰(B링크)
東京一四 滿洲七 五 朝鮮〇

불타는志願兵熱

應募者二萬九千中
適格者가萬八千
今期부터特別表彰制實施

총독부에서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陸軍兵志願者訓練所) 생도로 되기를 지원한사람중에서 다음과 가튼 요항에의하여 국민정신총동원연맹총재로하여금 표창케하여 그명예를 영구히 보존하도록하였다 ▲지원병훈련소생도로서 채용이결정된사람 ▲훈련소생도채용예정자로서 도지사로부터 추천을바든사람 대개 이상과가치 표창하는데 이상의 채용합격된이외에 채용후보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여주는것인데 그표창방법은 휘장(徽章)을 교부하여 저고리 혹은 두루마기의 가슴에다가 차도록한다 이 표창은 기왕의생도로서 이미육군에 복역한사람 또는 현재훈련소생도와 일즉이 도지사로부터 추천된 채용예정자에게도 적용한다 금번도 지원병훈련소 생도모집 정원은 삼천명으로서 오는십일 이 모집을 마감하는 날인데 지난삼십일까지의 응모성적을 보면 지원자가 이만구천명이며 그중에서 도지사의 추천범위에 드는 적격자(適格者)가 일만팔천명이다

培材中學奉祝音樂

부내배재중학교(培材中學校)에서는 오는이월오일오후 일곱시반부터 동교강당에서 황기이천육백년봉축 교내음악회를 연다고한다

職業紹介令

趣旨講習會
道內三都에開催

平和産業의失業者

五個道에委託輔導
經費四萬五千圓各道에交付

不正米商摘發

國境鐵道局員
慰問班을派遣

筋保新加入者에
奉祝記念證書

比島遠征拳鬪
第一戰에惜敗

【마닐라에서金明坤發】比島遠征中의 우리東洋拳鬪會일행은 第一戰을 卅一日午後八時부터 리알스타디움에서 比島各級第二位選手와對戰하야 三對二로 東洋軍이 惜敗하엿다

【比軍】 【東洋】
○로자리오 判定 金仁泰×
×아리스베 判定 梁致模○
×코-드바 判定 鄭福鉉○
○엘냐트 判定 韓龍河×
○타코니코 判定 黃起祚×

今夜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六時二五分(大) 講演 ▲七時 ▲九時五分
第二放送 ▲午後六時 ▲六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 ▲七時四〇分 經濟解說 ▲八時(東) 管絃樂 ▲八時四〇分 ▲九時一〇分(東) 時事解說

鐵箒

자동차운전수들이 제일꺼리는것은 규측위반이다 ▲그중에는 규측을 위반했다가 『취업정지』니 또는 운전수면허를 취소당하느니 하는일도잇다 ▲그때문에 운전수들은 손님이 돈을더내일터이라고 아무리 간곡히청을해도 함부로지안는것이 보통이다 ▲규측을 위반해서까지 무리한운전을하다가는 위험한일도 잇겟지만 처벌을밧고 운전수의직업까지 빼끼는것이 더무서운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전수의규측을 직히는것은 운전수로서는 당연한일이지만、손님들로서는 손님자신의안전과 운전수의입장을위하여 운전수로하여금 더욱규측을직히게해주어야할것이다 ▲그런데 경춘철도회사의 화물자동차가 손님을이십명이나 태우고 달리다가 기차와충돌해서 열명의사망자를내다는것은이웬일인가 ▲첫째손님을화물차에 태웟섯다는것부터 고약한 버릇인데 그직접책임을 회사에서는 운전수에게밀어버릴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운전수만이 웨그러케규측위반을하엿슬가 이는경춘철도회사라는 큰등록미덥든 탓이아닐까 ▲아무리해도 회사의책임은 면치못하리라

큰돈버리
素人鑛山發見의요로

決定、鑛山知識의有無가成功과失敗의分界이다 거기서鑛山의發見法은砂金이나、鑛物의地質鑛山關係法規等을極히平易하게解決하여素人이라도알기쉽고곳所用되도록한新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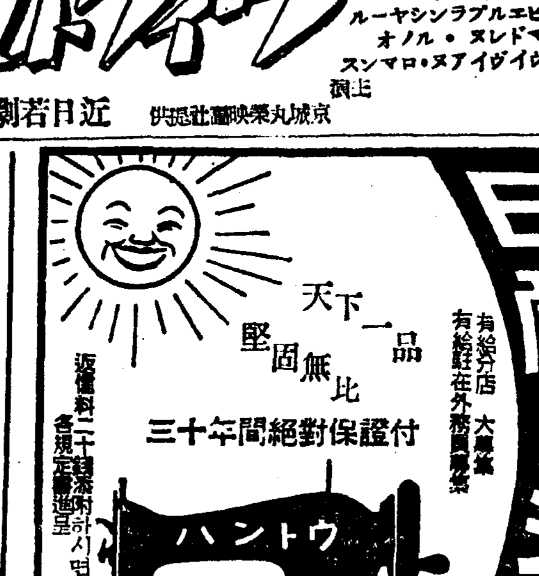
『鑛山發見の實際知識』
(定價一圓八十錢)東京市中野區小瀧町四二 東亞工業學會에서發賣한 希望者는振替로申込하시면
金鑛外重要鑛物標本 一組廿種을無代添付
代金은著者負擔送本함

廣告

外科 整形外科 專門
醫學博士 李容禹
京城府堅志町一一八
(前中央日報社東隣)
電話光化門③2736番

朝鮮殖産銀行

OKEH 레코-드는 오케-
中國아가씨
貞世情의新歌謠第一彈!!
고스모스歎息
안개진上海
張世貞傑作集
金貞九傑作集
南仁樹
張世貞
金貞九



윤고약
手術안코도 惡性腫毒과 骨髓에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製造本舖 慈祥局

開運成功長壽케되는
氏名의撰定

日程
北鮮北滿 長期巡演壯途
靑春座
東洋劇場

二月三日밤부터
극단 豪華船
公演 善人街

續新文學史
新"小說"의"擡頭"（二）
林　和

第二章 新文學의 胎生
第三節 新小說의 出現과 流行
A 新小說의 意義와 價値

그러면 唱歌에 比하여 新小說은 어째서 이러한 特殊한 發展形式이 생겻는가 하면 一個偶然 閑天才의 出現으로도 볼수도 잇스나 다른 한편으로는 新小說이 出現하기前에 이미 輸入된 政治小說과 飜譯文學이 新小說出現의 土壤을 닥것기때문이라고 생각할수도 잇다. 또한 李人稙에 뒤를니어 李海朝 崔瓚植 李光洙가 나오지 안코 新小說作家가 나온것이 그때의 文學的 政治的인 情勢와 新小說은 나올수잇섯스나 아직 現代小說이 生産되지는 成熟되지아니햇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도 잇다. 新小說은 保護政治時代를 지나 大正初에 가장 마지막 生命을 가진것이다.

그러면 新小說이란 大體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것은 現代小說 或은 우리의 부르는 그냥 小說과 古代小說（或은 舊小說）과의 中間에 잇는 過渡期의 小說이다. [illegible]

學藝
30年代를 檢討한다
歷史·行程·의·週期律
李相昊

政治（上）

一九三〇年代―다른方式으로表示해서 二〇、四〇世紀十年間世界政治의 動向을 檢討한다는것은 아무리簡單하게한다드라도容易한일이 아닐것이나 그는有史以來 여게比類할 複雜性을 가진 歷史上의 어느時代에서도 찾을수 업을것이다. 그러나 不過 十年間이란 時間單位를 本末이 업시 悠久한 人類歷史에 比한다면 實로 瞬隙에 넘지못하는 瞬間에 지나지 못할것이다. [illegible]

國際

秩序가 破壞되면 될수록 前記論理는 一層 그대로 世界史的 意義를 强度로 加重하게 될것이니 여게서 우리는 現代國際政治史의 行程을 三段式으로 分類할 수 잇스니 卽 戰爭準備期와 戰爭期와 戰爭收拾期의 三期로서 이 三期間의 繼續循環이 現代 又는 將來에 잇서서 國際政治史行程의 週期律이 될 可能性을 豫斷할수잇는 同時에 人類史의 宿命的 冥途가 될것을 슬퍼하는바이다.

三

人類史가 廿世紀關門을 넘어 오든 爾來 四十年間을 對象으로 前記週期律을 適用하여 大凡한 區劃을 지어보면 一九〇〇年代初頭十年內外間은 正統資本主義의 全盛期로서 列國은 爛熟한 自由主義를 旗幟삼아 國際市場 獲得에 熾烈한 戰爭過程을 밟아 大戰危機를 十分覺悟하고

戰備

에 汲汲하엿스니 이가 一次大戰의 準備期가 될것이요 다음으로 一九一〇年代를 中心한 十年內外期間은 [illegible]

史上 새記錄을지은 第一次世界大戰을치른 戰爭期가될것이요, 다음 二十年代는 徹頭徹尾 戰爭收拾期로서 交戰雙方各國의 意思와 希望을 無視하고 長期로 버더진 大戰은 戰敗國과 戰勝國의 差別을 두지안코 予先物質

入學案內

學校名	募集人員	願書受付	試驗期日
協成實業	一〇〇	自一月二十日	自三月二十日
咸興高女	一五〇	二月廿日까지	自三月十九日
光成中學	一〇〇	二月廿日까지	自三月十六日
五山中學	一五〇	三月十日까지	自三月二十日
公州高女	一五〇	二月廿五日까지	自三月十七日
定州公立農業	一五〇	三月五日까지	自三月十三日
光州公立農業	一〇〇	二月廿日까지	自三月十三日
晉州高女	一五〇	二月末日까지	自三月十九日
淸州公立農業	一五〇	二月廿日까지	三月八日
高敞中學	一〇〇	三月十日까지	自三月二十日
槿花高女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一面에잇서서만 三千五百億圓을 빼앗서가고 七百八十萬生靈을 빼앗서가 게되엿스니 이가튼 致命的大創痕을 收拾함에는 實로 戰爭以上의 苦心을 要하게되어 今世界는 深刻한 戰後恐慌의 潮風아래서 平和產業의 再調整、破產에 瀕한 戰敗國의 再建計劃과 함께 大戰淸算機關으로 平和의 偶像을 奉安한 國際聯盟을 中心하여 國際秩序의 新規定、戰債와 償金의 解決、戰敗國에 對한 徹底한 致命工作等 二十年代十年間은 實로 今世界가 完全히 大戰收拾工作에 始終하엿다고볼수잇을것이다。

四

이제는 問題의 一九三〇年代이다. [illegible]

準備

期에 該當할것이다 勿論 이十年이란 時間單位는 아무런 神秘도 潛在치안흔 任意의 時間區劃이라 아프로 四十年代 戰爭期를 四個月앞길러 二次歐洲大戰의 爆發을 보게되엇다는 亦是 忠實한 大戰準備期間으로 週回에 起伏한 小戰爭이잇다면 이또한 大戰爭을 目標한 前哨的前哨戰에 지나지못할것이다。列國으로서 大戰準備를 三〇年代에 들어 그 最初를 發하게

收拾

期의關係가 一의次位가二이요 二의次位가三이되는 數序와 가치 一目瞭然한 合理性을가진것처럼 戰爭收拾期로부터 戰爭準備期에로 連繫되는 合理性과 必然性도 여게서 가장쉽게 또 밝게 發見할수가 잇을것이다。

國의 大戰收拾工作의內容을 簡單히 紹介할必要가잇을것이나 여게서 숨길수업는 歷史의 因果律을 摘發할수잇는同時에 戰爭準備期와 戰爭期와의 關係 戰爭期와 戰爭

歷史

『最近十年世界政治史檢討』라는 浩大한 題目에 對하여 過分한 責任을 免코저한다。

區間中에서 前記한 因子의 指摘程度로 歷史元 又는 歷史構成의 因子又는 元이될수잇을 要素로 筆者는 여게서 一九三〇年代란 [illegible] 수잇을것이니 이點이 人類歷史로 最小公約할수잇는點을 차즐 [illegible]

二

至今엔 名句로부터 俗談으로 常識化되엇다고볼수잇지마는 『戰爭은 政治手段의 延長이다』란 말은 有名한戰爭評論家『크라우제비츠』의 喝破한바다。이名句를論理公式으로삼어 한時代의 歷史를說明하며 適用한다면 『어떤時代의 戰爭史는 當該時代政治史의 延長에지나지못한다』는結論에 到達할것이요 이結論을 다시 解說的으로 發展시키면 『어떤時代의 政治史는 當該時代에 잇서서 代表的大戰爭의 原因、現狀、結果의 敍述에 不過하다』는 論理까지차즐수잇을것이다。前世紀와달라 政治 經濟 文化一切에잇서서 一民族又는 一國家를 單位로삼아 그存在의 孤立自由를 絶對로 拒否하는 現代社會機構와 現代

原始裁判과 反坐法

烽燧台　金汝植

人文이 未開한 時代의 裁判는 사람의 理智와 判斷力을 超越한 靈的 神力을 빌어서 行하엿다. 例컨대 犯人으로하여금 끓는 물속에 손을 너케하거나 불속에다 발을 너케하여 火傷의 有無로써 罪의 有無를 決定하는 方法이었다. 이러한 裁判法이 現今에도 上에 施行되고잇는곳이 잇다. [illegible]

探險家의 報告에 依하면 阿弗利加(아프리카)地方의 土人들은 數千年 [illegible] 묵은 鱷魚를 神의使者로서의 名判官으로 [illegible]

미개한 그 中에도 우리의 及하는 [illegible] 法律을 抹殺하는 한法이다。現代에잇서서도『에디오피아』에는 [illegible]

古代詩歌의 美
古歌今釋（二篇）
—麗謠評注의 一節—
（四）　梁柱東

이제 歌意를 나거니와 [illegible] 序曲의 悠長함과 안탐가운 心思를 叙할새 한著의 然한 情緒와 九曲의 斷腸과 萬解의 離愁를 段의 切切한 叙述은 到底히 尋常한 手段과 恒한 例의 技巧로써 그 表現이 可能하지 안을것이다. 무릇 悲戀을 다만 悲로써 그대로 直叙하고 怨을 오직 怨으로만 單純

山居閑題 完
……續·宮村記……
李無影

健康氏

옛날에 한 소곰장사가 잇섯드란다 아마 이 이야기가 어떤날 자네 山中이엇든 모양이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illegible]

「이사람 자네 애긴 싱겁기가 누런 와 잇서도 가난하니 어떤날 그 보다두 산돼지 사냥갓든 이야기나 하게.」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네 이건 소곰장사 이야기니까 좀참고 들어주게.

어두겟나.」 이러케 시작하고 이야기가 이러하단다. 옛날에 소곰장사 한사람이 잇섯다 며칠을 두고 가난하기만해서 平生所願이 부자가 되고싶었다. 그러나 남의 小作이나 하고 소곰장사나 지고 다녀서 富者가 될理가 업슴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理가 업다. [illegible]

다 신기해서 뒤를 따라서라니까 山넘어 洞里 어떤婚姻집으로 들어간다. 老婆가 들어서자 온 家族들이 할머니 아주머니 歡待를 하며 上座에 자리를 잡고안는다. [illegible]

그러나 나는가끔 이소곰장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웃으라고한 이야기에 한번웃섯스니 그만일 이야기인데 이이야기를 回想하고는 혼자웃고 옷고 하는동안에 웃음은 어디로 가고 그무슨 偉大한사람에게서 警句나들은때처럼 一種의 敬虔한마음이 생김을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가. [illegible]

한것이 아니고 우리와 年甲인 親舊가 期이 數百 數千으로 靈想한 [illegible]

「그렇지 뭐어것지!」 이러케 「아, 이르다 뭇인가 이러케 어떤 實物이라고 팔것소! 하고 이래왓것다. 그러니까 이젠 몸이 달바개. 그래 배앗 천량하다가 五천량을 준다니까 그이기는척하고 팔어버렷지. 그래 가지곤 이런 잔치집만 차저다닌다. [illegible]

斷想② 精神의 祝祭
李鳳九

『페페르·모코』에서 切切한 感激을 바든것은 사랑과 妬의 感激을 바든것은 사랑과 변환과 『가스파』의 巢窟을 脫出하여 새로운世界에로 復歸하려는 本能이 最高로 純化된 『페페』의 强烈한 『賽마니티』와 가스파―의 特殊한 環境와 暗 [illegible]

에서 얼마던지 드를수잇다 『메메』는 이 彷徨을 넘어서 어느 環境의 遍歷을 지나지안코는 차저보기어려운 人間이나 『스리만』은 우리와가튼 한 자리에서가치울고 가치하매는 [illegible]

庚辰史話
三大罪人의 亡命
（五）　黃義敦

（3）北門士禍의 慘劇

그네의 執由한 闕廷中에 實良科의 設取、上相氏의 政定、縮約의 施行等이 여러가지로 [illegible]

（4）金湜의 亡命

趙光祖一黨의 改革運動은 政治家的見地에서보면 우에말한바와 가치 改革家의 內容의 貧弱함과 改革方法의 急激輕率한 缺陷이 업지안하나 그네의 精神만은 君國을爲하여 誠忠하자함에 잇섯 던것이다. 『愛國如愛家 愛君如愛父』白日照丹心』[illegible]

正臺

아닌보다는 한 [illegible]

三段

오로 날이인다 『大同江 너는 디 울라서 벼 [illegible]

文心

이러한 그라 [illegible]

土曜詩壇
返歌
黃民

버래(蟲)는 한울처럼 무거웟다
캄캄하게 무거운 버래를 밀고 날으면
가슴을 질러 미여지게 하얀 꽃향기처럼
죽엄이 나를 내가 죽엄을
물처럼 소리나게 안어본다
한모롬 굼타타케 넘어가는 서으롬
서으롬속엔 살결을 바타보는 차거운 太陽이 걸리엿고
서으롬속을 바람에 지워지는 고요한 田園의 風景이 지나간다
먼 밭갓까지 길―다타케 실여지는 落心
靜寂이 肉身에 아아 나는 버서버리자
고요히 血脈이 노래하는 노래하는 血脈을 가진 肉身이엇다
버려진 肉身을 흘치면 아직도 이러나는 노래소리를
記憶할수잇든
아아 아우도 형도 업는 孤獨이엇다
어지러운 하늘이 거울처럼 떠어저잇는 孤獨이엇다
풀입과 풀입과 서로 도라안저서잇는 孤獨이엇다
하아 나의가슴속에 시름엇시 기대어스는 그림자를 안고
발자옥을 주으며 도라가는수 밧게 업드나
도라가며 二月이 지나간 과리를 부르는수밧게 업드나
（作者는 詩原社의同人）

006414

一等當選戲曲（東亞日報上演懸賞）（5）
海燕（全一幕）
咸世德 作

스틸… 劇團高協　鄭玄雄 畵

世眞 누나! 오늘은 갈매기가 떼루 몰려왓군요?

珍淑 （憐憫하여 진혁을 작구도 라다보며）엇번엔 저러케 초저녁부터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世眞 새우 당밥는 조하나나보지요?

珍淑 짤그룹에 흘린 생선을먹으려오는거얘요.

—間—

世眞 누나 아버지가 오서서 뭐라구 하섯서요?

珍淑 날더러 누나라구 하지마―셈이지요.

世眞 （疑訝한듯 그명듣을 크게 뜨며）웨요?

珍淑 우린 남매가 될수업서요

世眞 어째서 못돼요? 사람만 잇스면 되지 어째서 못돼요?

珍淑 남들은 그러케 보질 안는데요 아까 아버지가 오서서 세진씨가 오거던 물러보내달라구 얘원하다시피 하구가섯서요.

世眞 내가 조곰만 일직왓서두……

珍淑 일직오섯드면 아버지하구 싸움 하시단밧이얘요?

世眞 그럼요.

珍淑 그게 무슨 소리얘요?

世眞 （悲歎이지 分析이지 한 어려운表情을 지오면）난 착할 따름이지 아버지한테 한마디 말두 업서요.

珍淑 그건 외진 생각이얘요. 아까두 세진씨가 나가드니밧게 안올다구 누님이 걱정……

世眞 네! 지금 살앗스면 진숙이누나 보다 두살우이얘요 자기 유신은 입으로 잇섯되지 안는다지만 경밖이지 누난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서요（追憶을 더듬어며）한마디 한마디 나즉이 이야기한다）숙희두 전 문파두 다 처재두 출업햇서요 늘 초롱키구 방안에 혼자 잇질 조하햇서요 어떠케 책을 읽엇는지 나중엔 눈이 짓물러서 수술까지 햇섯스니까요. 나두 누나한테서 처음으루『미련―』『베―로―벤』두의 예술가의 걸어간길을 알게되구『렘만, 하세』라는고도한 시인의 글을 읽어보기두 됏섯서요

珍淑 그러다 날을 웨 아버지께서……

世眞 말리는 연애를 햇거던요 아버진 착우의 아들두 그때 대학의학을 졸업한 몸이라남

珍淑 （거친 숨을 드리쉬고 난） 아이

世眞 가 하게 [illegible]

珍淑 누나 얼굴이 나하구 그러케 닯엇서요?

世眞 네! 지금두 진숙이누님이러케 바라다 보구 잇으면죽은 누나 얼굴이 그대루 떠올라 오는것가태요

珍淑 얼굴은 갓자만 누난그러케 곱홉만이 하섯다는데 난이섬구석에서 아무것두 배운게 업스니 세진씨 누나될자격이 업서요.

世眞 사랑에 지식이 무슨관계가 잇서요

珍淑 （싱긋이）그럴가요?

世眞 난 누나하구 이러케 나란히 안저 잇는것이 조하 정제압두(兄弟들)처럼 구더버렷스면조켓서요 그러케도면 팔성을내겟서요?

珍淑 오는밤에 가시거든 아버지한테 우리를 사이를 자세이 얘기해드리세요?

[illegible] 귀 키와 거이시 [illegible] 하마트면 달려가서 「누나」하구 소리칠뻔 햇섯서요 누나 얼굴이 나하구 그러케 닯엇서요?

世眞 그럼 진숙한 사랑속에서 우리 누나가면웨 피지두못하구 죽어겟서요

珍淑 （울라며）누나라니요? 누나가 업스시다면서?

世眞 잇섯는데 죽엇서요

珍淑 어쩌다요?

世眞 아버지가 생으루 죽이신 거얘요. 아버지가 우리어머니하구 혼을 하섯지요.

珍淑 （禿然히）난녕부터 맘이 세상이 싫어젓서요. 눈날 따러가구 십흔생각이 작구들지만 그럭타구 죽지두 못햇구 학교도 집어치구 어데로 떠나버릴가 햇지 만그러지두 못하구 호―저호느런 살아왓서요. 요전에 첨

世眞 누나! 오늘은 갈매기가 클것 하시드데요 그럼 어지신 아버님한테 정이 안드시면 불효에요

世眞 흥! 퍽두 어질겟지요?

珍淑 그러면 죽을 수 [illegible]

世眞 자한테 시집을 보낼라구 하섯지만 누난 간절젓을 하면서 그리웁보를 하는 동무를 바를 사랑햇서요 도저이그 이하구 결혼하게 될줄 알자 눈이 다리까지 퍽퍽 빠든날밤 절된서 조곰 떠러진 어느 파수입 뒤에서 자살해버렷서요.

珍淑 에이 저런! 어머니가 업마나 애통하셧슬까!

世眞 뭘요! 게모랍니!

珍淑 그러치는누나가 아니세요? 世眞 네! 누나 친어머닌 눈날 나코 곳도라가섯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어머니하구 제 혼을 하섯지요.

世眞 （珍淑의 뒤편 바로 아 [illegible]

珍淑 （沈黙이 自己 머리카락을 손질） 아야 한가다 잡아빼다.

世眞 뿌디치고 갈라는 珍淑의 머리에서 날내게 머리카락을 한가닥 잡아빼다.

珍淑 아이 그리자 머리카락이 세요 （卽刻에 주머니에서 手巾을 꺼내 두 가닥을 싼後）이걸루 정첩이 어거서 날좀 울림하데요 세진 오르면 구중중한 선창으루 물어갈테구, 서울으루 떠나 국수을 시켜언장구배에 [illegible] 테니까 그때치만 날좀은 몰 이라구·모래바다 미여님이 며 가라안게돼요

珍淑 그게 무슨 미신이얘요?

世眞 머리카락을 쓰는게 아니 니까 우리사람두 언제까지든 지 쉬지안코 돼요

珍淑 흑메가는 手巾을 한참 바라보드니, 가만한동 엽는마 음의 動搖에도 나시 毒髮한다.

世眞 （突然 소래를 노파야） 난 어떠케 조하.

珍淑 （珍淑의 가슴에 얼굴을 파 뭇고는다）누나!

世眞 （珍淑의 머리 만지면서 가슴에 맨 [illegible] 世眞의 日 게 안으면）아 난어떠케 조 하?

스틸…劇團高協의世眞·珍淑의珍淑

光化 一月號 發行所 上海 定價 三十五錢 [illegible]

災害對策과農業企業化

朝鮮農業經營의 規模擴大問題

⑥……鄭和濬

끝으로 朝鮮農業의 企業化問題 即 大規模經營의 可能性有無問題는 어떠한가. 金融資本에依한 土地兼倂作用은 大體로 一段落을 짓고 最近 오히려 分化的傾向이濃化하여 實際上 大規模化에一大支障이 되고잇다는것은 이미 말한바이다. 뿐만 아니라 우에서(二回와三回) 나는 이企業化의 行程을 阻止하고잇는 朝鮮農業에 남어잇는 몃가지 中世的殘滓와 特質에對하여 論述햇다. 그러면 朝鮮農業의 企業化問題는 不可能한 問題인가? 그러나 나는 다시 그다음(四回)에 朝鮮農業에 잇서서의 現代科學을利用하고잇는 不可避한 漸步的反面을 論하고 또 水利施設의 發展에依하여 農業經營에미치는影響—乾燥地代의 消滅過程까지도 말햇다. 確實히 現代農業은 土壤學(現在朝鮮總督府에서도 朝鮮內主要耕作地에對한『土性調査』를 施行하고잇다 그러나 아직 그實績의 나타남이업서 여기에對한 論評은 省略햇다) 化學, 機械學을 利用하고잇서 過去의苦力으로 營爲하던小規模的인過去農業은 不合理하게되고 또 非生産的인것이되엇다. 따라서 一般的으로보아 特殊한 營利地主의 金融資本에依하여 助長되고잇던 中世的體制는 化學的 肥料와 機械의『動力』에 傾斜를 讓하는 歷史的 運命을 가지고잇는것이다. 또한편 現代的經營은 貧弱한 小農層으로서는 購入使用할수업는것, 農業에對한 諸科學的 試驗(肥料試驗, 土壤研究, 品種改良)과 肥料販賣研究(等等)은 零細人으로는 個人의 經驗으로는 到底히 遂行치못하는것, 等等이 經營規模의 擴大乃至協同經營을 必要로하게되며 이러한 困難解決을 爲하여 社會的 可能性을發生하게된다. 아즉 朝鮮에서는 이러한 段階까지도업스나 內地에잇서서는 共同乾燥, 共同耕耘, 病蟲害의 共同驅除, 甚至於 農業副産物의 共同加工等 여러가지 農業에 關한 小共同組合이 잇서 그數는 昭和八年에잇서 벌써 二十三萬五千數百에 達하엿다. 朝鮮에도 金融組合의 肥料共同購入, 産業組合의 [illegible]

組合의 協力 [illegible] 共同作業은 [illegible] 一戶五十町步의 [illegible] 大經營의 [illegible] 그自體의 共同作業이라고는 못하겟다.

또 最近에잇서서는 農業機械化運動이잇서 [illegible] 同時에 共同作業, 共同經營의 [illegible] 人間勞動의 浪費를 排除하는 偉大한機械가 農業에使用되는것이 農業의 歷史的發展에 [illegible] 한개의 推進力이것마는 企業化의 可能性을 [illegible] 前, 平野部에잇서서도 一戶의 最高耕作面積이 大槪 一町步未滿이던것이 [illegible] 使用에따라 五町步 十町步로 集中해젓스며 또 一, 二個 [illegible]

[illegible] 以上에잇서서 [illegible] 아니다. [illegible]

그러므로 現今朝鮮農村의 農業은 [illegible] 大同團結 [illegible] 金融資本全體中에 包含시키어 [illegible] 經營問題를 말하지안흘것이다.

×

그리고 이農業企業化問題의 災害對策과의 關聯性에잇서서 部分的으로 論及햇다하겟다. 即 農業에서의 化學的科學의 利用은 病蟲災害 어느程度退治할수잇스며 治水水利施設의 完璧으로는 旱, 水災에 對應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其餘의 風, 雹, 霜害災害에對한 處置로서는 政策問題 [illegible]

[illegible] 日本에서도 昭和四年부터 [illegible] 實施되고 [illegible] 그러나 이것은 內地에잇서서만 施行된것이요 朝鮮에는 아직이것이 施行되지못하고잇는 것이다 (終)

棉作增產에邁進

五十餘萬圓의豫算을獲得코

新品種大量生產準備

昭和十七年度 作付面積三十五萬町步에 四億九千萬斤을 目標로하는 朝鮮의棉作增產計畫은昨年의 南朝鮮地方旱災로 計畫에 큰支障이생겻스나 新年度는 五十餘萬圓에達하는 豫算獲得과優良品種發見에 큰힘을어더 計畫遂行에拍車를加하고잇다 從來品種은 陸地棉은 三百八十號 百四十三號의四이고 在來種은 百三號인데 最近木浦棉作試驗場에서 S二號라는 新品種의育成에成功하엿다 이品種은 纖棉率이만코 收穫이 만코 熟期가 일른것이特長으로서 十四年度棉二億四百萬斤이全部이品種이라면 七百萬圓의 生産額增加가되리만큼 優良種이므로 農林局에서는 新年度부터 奬勵하여 增產計畫期間內에 全朝鮮的으로 普及시키고저 同品種大量生產을準備中이다

海運統制協議

【東京電話同盟】海運統制協議會는 一日遞信省에서開催하고 海外炭積取에關하여 一月分九萬키로의 統制配船의 手配를了한 旨報告하고 다음에二月分配船手配에 關하여 協議한結果 配船命令을發하기로 意見一致되엇는데 積取數量에關해서는 一, 一月十日까지의 積殘은約九萬키로잇는것 一, 率高의 荷役能力에 對하여 考慮를要하는것에對하여 여러가지 意見의開陳을하고 이것은特別委員會에 一任하기로決定 다음에昭和十五年度鐵鋼材輸送豫定數量에 關하여 商工省側으로부터 說明이잇슨後 다시北支向小麥輸送에關하여 一月三十萬袋輸送手配를 한 旨를報告 뒤이어二月分으로서 五十萬袋의輸送手配를하기로決定하엿다

機構의 單一化가 緊要하다 當社에서는 當局의 意向도잇서그 單一化에 進出하여 交涉을한結果 今回그第一段階로서 當社가 丸計側의 丸計를 買收하기로되어 丸計은 來六日 株主總會를열고 會社讓渡의件을 附議決議할터이며 月末까지엔 買收의 手續을 終了할 豫定이다

【[illegible]】讓키 爲하여 渡東中인 朝鮮運送專務荻原三郞氏는 二日朝 釜山上陸『아까쓰끼』로 歸京하엿는데 車中 如左히 말하엿다

小運送統制의 前提로서 計算

國境의紙幣混流

今後도依然繼續?

鮮滿物價調整이先決問題

鮮滿國境의 滿洲中央銀行券과鮮銀券의 交換은 鮮滿兩當局의應急措置에 依하여 昨年十二月末까지는 無手數料로 鮮銀新義州支店과 金融組合에서 鈔票交換을 開始한 結果, 鮮銀調査에依하면 十二月末現在에잇서

金融組合關係 六萬五千三百圓

新義州支店關係 三百三十一萬圓

合計 八百六十六萬圓

이라는 豫想의 約倍額에 達하엿다 鮮銀에서는 今年一月早터의 交換分을 豫想하면 아직도 相當히 滿洲國幣의 朝鮮內流入이 잇슬것으로보고잇는데 滿洲國의 物價高는 紙幣交換手數料

百圓에 對하여 二圓을 처더래도 朝鮮內보다는 相當한 高位에 잇고 今後에鮮滿物價의 調整이 行해지지는 안는限 國境에 잇서서 兩國幣의 混流는어떤 程度를 免치못하리라한다

昭和電工拂込徵收

【東京電話同盟】昭和電工에서는 前부터 大藏當局에對하여 新株第二回拂込徵收(一株에對하여 十二圓五十錢)를 申請中이던바 어지음決定을보앗다 右拂込金은일미品의設備擴張에 充當될것인데 同社의拂込資本金은 徵收에依하여 九千五百萬圓으로된다

凶作年을反映

米穀資金激減

近一千萬圓의減少

總督府 米穀課調査=十一月末現在의 鮮, 殖銀, 東拓, 金組의 米穀貸出狀況은 金額六百九萬四千二百八十七圓, 十八萬一千四百

鰮粕出廻不振

內地서闇取引

公定價格制定急務

最近朝鮮內의 鰮搾粕의 出廻는 極度의 不振을 告하게되엇는데 一團內地方面으로부터의移出促進을 希望하는 소리는漸次 노파지고 總督府當局으로서도그 對策에 苦心하고잇다 朝鮮에서는 九·一八價格停止로 粕은 九圓二十五錢에 釘付되고잇는데對하여 內地에서는 價格停止를無視하고 闇取引을하여 十一, 三圓으로 賣買되고잇는 關係로生産者가 賣惜하고잇는것이 主要한原因으로서 內地의 公定價格을 制定치안는限 이러한 事態는 改善되지 안흘것이다 또 內地는 滿洲國의 大豆出廻不振, 大豆粕의 輸入難에 加하여 朝鮮의鰮粕移入難으로 有機質肥料의需給關係는 極度로 窮塞化할것으로 豫想된다

三十五石으로서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九百九十四萬一千五百五十七圓, 五十一萬四千二百五十石의各激減을 示한바, 右 貸出殘

糧友會支部役員會

糧友會朝鮮支部에서는 三日午後四時부터 半島호텔에서 役員會를開催하고 十四年度事業報告를한後 十五年度事業計畫으로서左記와如히 食糧報國의 鮮設을爲

(가) 食糧改良獎勵(燕麥, 라이麥, 玉蜀黍栽培獎勵)

(나) 食糧의貯藏에關한研究

(다) 食糧資源의 開發增産에關한調査研究

(라) 救荒食糧에關한調査研究及指導

三, 朝鮮人日常食의 調査研究 又

四, 鰮의徹底的利用法의研究(北朝鮮沿岸의各産業開發을 一層効果的으로하기爲하여 利用方法에對해서 總督府와 連絡하여 絶對的綜合的經營의 指導를圖하고 鰮에關한 研究機關을 建設함)

(가) 朝鮮人食生活의現狀調査

(나) 朝鮮人食生活의指導要項確立

(다) 實際的食生活의實地指導

水產關係會合一束

二月七, 八日 咸北漁聯總會

二月十日 朝水評議員會

同十二日 水産會總會

同十四, 五, 六, 七日 油肥總會

同二十, 卄一日 江原道漁聯總會

雲母統制會社

買入價格認可

朝鮮雲母組合으로부터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인 雲母統制會社의 買入價格은 一日附로 認可되엇는데 右認可價格은 如左하다 (一斤에對하여)

番號	一等	二等
A 1	[illegible]	[illegible]
No. 1	[illegible]	[illegible]
〃 2	[illegible]	[illegible]
〃 2分의一	[illegible]	[illegible]
〃 3	[illegible]	[illegible]
〃 3分의一	[illegible]	[illegible]
〃 4	[illegible]	[illegible]
〃 4分의一	[illegible]	[illegible]
〃 5	[illegible]	[illegible]
〃 5分의一	[illegible]	[illegible]
〃 6A	[illegible]	[illegible]
〃 6B	[illegible]	[illegible]
〃 6C	[illegible]	[illegible]

六號ABC는『크리-스』로함 但5二分의一號以上의 『크리-스』는本表의 一割引下로함

野田新吾氏(朝鮮運送取締) 利川支店開設披露코저 二日同地에出張 四日歸任豫定

政府出資會社拂込金

總計一億六百八十萬圓!

【東京電話同盟】十五年度에잇서서의 政府出資會社에對한 拂込金은 滿鐵의 八千三百四十萬圓을筆頭로 帝國燃料 大日本航空 肥料等 總計一億六百八十萬圓으로서 其會社別 內容을보면如左하다 (單位千圓)

一, 南滿洲鐵道政府持株及拂込金	八三, 四〇〇
一, 帝國燃料興業	二二, 二五〇
一, 大日本航空	四, 四〇〇
一, 産業組合中央金庫	五〇〇
一, 日本肥料	六, 二五〇

十錢

▼…擬內新藏相의 財政演說은 所期에버서나서 一般國民이失望.

▼…抽象的 文字羅列로는어떠케 무엇을 하겟다는말인지 알수업다.

▼…彪大豫算을 그냥두고서 무슨方法으로 인플레를 막어내겟다는말인지 궁금.

▼…戰時經濟遂行의 高調만가지고는 지금까지의 精勤과別無差異.

▼…具體的方策을 示하고國民더러 이러케하라고 協力을求하는것이 當然.

▼…財政經濟의 貧困을 打開하려면 몸에다라는 수작가지고는어림도업다.

▼…『不言實行』이 『無策無能』이 되어서는 큰일.

▼…統制經濟를 根本的으로再檢討하고 長期戰 長期建設에처디어나갈새로운 體制를세우라.

▼…하는이말에못할 아닌것을 政府다시 기괴再認識하라.

織物類公定價格

急速히制定中

【大阪電話同盟】纖維製品의 協定價格未發表로 業者는 右發表를기다리고商談을하지안는 關係로 朝鮮內의 織物賣買는 逼迫傾向을 示하엿스므로 總督府商工課에서도 그形勢를參酌하고 急히 公定價格을 制定키로 決定하엿다 來週中에 專門委員會와一般委員會를 開催하고 決定할터인데 多少의高下가잇겟고 公定品目은 人絹織, 綿織布等 廣範圍에亘하여 制定되리라한다

紡績工組認可

京紡, 朝紡, 鐘紡, 大日本紡의 四社를會員으로하는 朝鮮紡績工業組合은 商工同業者는 工業組合令에 依하여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던바 一日附로 認可되엇는데 同組合의 事業目的은 如左하다

一, 統制

一, 共同購入

一, 指導研究調査

一, 其他

大阪商品市況

【大阪電話同盟】◇三品=寄付 買進되어 期一日부터 弗價의好況으로 全體的으로 續騰되는 動향이었스나 果然그리라고하는 [illegible]

今日의市勢 二日

株式 一進一退 浮動

前場浮動 今朝는東新九低인百四十圓丁에寄付된後 小浮動商狀을 呈하다가 結局東新百四十圓六 鐘新百五圓八 安取十九圓丁에大引

後場軟調 後場도東新二高인百四十圓八, 鐘新百六十九圓一, 鐘新一高인 百五圓九에 寄付後高値警戒로反落되엇다

高價買不續

議會에서는 經濟商戰, 外交商戰을 中心으로 相當히 活潑한展開를보이고잇는데 財界의 段階에이르러 드디어 電力不足이 緊縮休業이 續出하고잇서 이問題만으로도 一波瀾은 잇슬것으로豫想된다 그뿐아니라 昨年以來로 折衝이던 滿蒙國境劃定은 드디어 彼我意見이 對立되어 委員會를 解散하게되엇는데 모두日蘇會談의 圓滿進行바라는 것으로 잇고잇섯스나 마음 이것도 衝擊을주어 高價로 整理하는 氣分은 依然한것이잇서 鐵商狀을 呈하고 잇섯다 左右間에 議會中은 人氣의 明朗化를 바랄수업會모양 이고 도리어 恒常的으로 重壓을 바들것이엇다

延取 全然不成 休商

前場不成 今朝도 新賣買모 後場同調 後場도 亦是賣買가 全然업섯다 終始하엿다

海外經濟 一日

三品

◆米綿 定期 [illegible]

◆金銀 [illegible]

今日의財界 二日

◆米價 (京城, 公定價) 正租(京畿坊主)四等二石五斗 玄米(京畿坊主)四等二石五斗 七分搗白米(小賣)四等二石五斗

◆雜穀(京城, 卸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illegible] 粟 [illegible] 大豆 [illegible]

現物部分高

現物은一高一低로 區區한商狀을 呈하고잇스나 鋼低物과 材料와各株에 對한 選擇買氣가잇서서 鐘實은 一圓五高인 七十七圓七 디·젤工業도 一圓五高인 四十七圓丁어 엇고 其他도 一般的으로 反撥氣味어엇스나 아직 積極性은업서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殖銀新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朝鐵	[illegible]	同四新	[illegible]
金剛電	[illegible]	同同新	[illegible]
京南鐵	[illegible]	漢水電	[illegible]
京電	[illegible]	西鮮電	[illegible]
南電	[illegible]	中央無盡	[illegible]
國産自	[illegible]	製鍊	[illegible]
新燃料	[illegible]	小林新	[illegible]
全北鐵	[illegible]	三陟開	[illegible]
마녜	[illegible]	朝紡新	[illegible]
朝石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弘中新	[illegible]
◇內地株式			
鐘實	[illegible]	帝人新	[illegible]
九曹新	[illegible]	日曹新	[illegible]
日窒新	[illegible]	日石	[illegible]
日曹	[illegible]	三菱重	[illegible]
野村	[illegible]	帝產新	[illegible]
商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池貝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航空新	[illegible]	重工新	[illegible]
日立新	[illegible]	小倉新	[illegible]
神戶新	[illegible]	特鋼	[illegible]
鋼管新	[illegible]	川製	[illegible]
日鐵新	[illegible]	昭電	[illegible]
淺野二新	[illegible]	水產新	[illegible]
◇滿支株式			
滿鐵新	[illegible]	明石新	[illegible]
東亞新	[illegible]	東邦	[illegible]
大同礦	[illegible]	滿州電	[illegible]
▲東京國債		日滿電	[illegible]
▲甲號五分	[illegible]		

國境議定委員會는

[illegible] 滿蒙國境劃定委員會는 意見不一致로解散 ▲日蘇 日米 日英의 山積된懸案▲ 如何히 打開할것인가? ▲目下 最惡場面에 到達한電力問題의 아울러 議會서도 相當論戰이 展開될뜻 ▲物資不足의 現勢를 보고는『인플레』熱이 좀처럼 冷却되지안코 亦是 低價에는 指値注文이 만흔모양

銀行券 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預金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大阪金利 翌日物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大阪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illegible]

對英 一圓에 [illegible]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棉花

◆大阪長期 [illegible]

生絲

◆横濱生絲 [illegible]

綿布

[illegible]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illegible] ◆阪神鰮油 [illegible]

京城物價 二日

◆白米 (一石, 單位錢) 七分搗米 小賣(公定價)(石單位錢) [illegible]

◆雜穀 (小賣) [illegible]

◆絹織物 [illegible]

◆本絹部 [illegible]

◇交織部 [illegible]

◆毛織 [illegible]

◆綿絲布 (單位錢) [illegible]

◆炭類 (單位錢, 但市內價) [illegible]

◆內地炭 [illegible]

◆朝鮮炭 [illegible]

◆滿洲炭 [illegible]

◆石油 (單位錢) [illegible]

◆洋灰 [illegible]

◆織物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木材 [illegible]

◆牛皮 [illegible]

◆紙物類 (單位錢) [illegible]

◆塗料 [illegible]

◆金銀價 (單位錢) 京城市中價(匁)賣價 [illegible] 純金 [illegible] 二十二金 [illegible] 二十金 [illegible] 十八金 [illegible] 九金 [illegible] 白金 [illegible] 純銀 [illegible]

◆日本金物市價

[illegible]

金 銀 買入 三昌鑛業所 京城府大門通二丁目 振替京城二〇三五番 電話本局二〇二五番

朝鮮內國用生絲

積立金制度延期

蠶業에關한 朝鮮內消費生絲(國用生絲)價格을 一千六百圓臺에 安定시켜 生絲輸出數量을 確保하고 絹織物價格과 關聯하여 內外需給調整과 價格調整을 期하려고 總督府에서 朝鮮蠶絲會로하여금 二月一日부터 實施케할 豫定이든 蠶絲業維持安定積立金 適成規程은 農林省의 가튼案이日本中央蠶絲會總會에서 反對를맛나 結論에 到達하지못하엿기때문에 內地와의 連關性에鑑하여 朝鮮에서도 愼重히 檢討할必要가 생겻기때문에 實施는 暫分間延期되엇다

鮮銀事務所

山東海州에設置

鮮銀은 支那山東省 海州方面의 戰果一段落을 機會로 海州에 派遣員事務所를 設置키로되어 去一月八日에 開設하엿다

電力調整令

適用區域

三地方으로된듯

【東京電話同盟】發動키로決定한 電力調整令의 適用區域은 大體 東京, 阪神, 北九州의三地方으로 하리라한다

燐寸不値上

生產補助金交附

【東京電話同盟】燐寸飢饉에 對處하려고 中央物價委員會의 雜品專門委員會는 十個入一箱(普通二等)十錢을 十一錢으로 其他各種도 各各價格引上을하고 原案을決定하엿스나 商工省物價局은 低物價政策의 立場에서 燐寸가튼 生活必需品의 値上이 大衆에게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反對하여 그대로 取消되엿다 그런데燐寸飢饉은 極히深刻하게되고 家庭用燐寸은市場에서 全히姿態를업시게되엇스므로 政府는 至急增產을 命할必要에 切迫하여 二日午前 九時半부터 院內에開催된 閣議席上 萩原商相으로부터 燐寸의增產을 圖謀키爲하여 政府는 十四年度追加豫算으로서 三의二個月分 生產補助金을交附할 四十萬圓의 豫算을 提議하고 閣內相協議하여 卽時 十四年度追加豫算으로 四十萬圓을計上하여 議會에提出키로되엇다 그리고右 補助金交附와 同時에 商工省에서는 省令에依하여 增產命令을 낼것으로 同省化學局에서는 이미 省令의 成案을 엇고잇스며 이것에 依하여 問題의 燐寸引上은 施行치안코 重要肥料와同樣 補助金에 依하여 解消한것이다 또 公定價格에서 除外된 輸出用燐寸에는 補助金은 交附치안흘方針이다

小運送合同會社

主要十驛에서設立中

朝運은過半數投資?

朝鮮小運送業統制令은 一月十五日부터 實施되엇는데 이로서 全朝鮮의 小運送業者는 五個月以內에 總督府에 屆出하는同時에 그認可를바더야하고 또監督官廳인 總督府에서 其有効經營期間을 指定하여事實上朝鮮內小運送業의 一大統制가 實施되게되엇는데 各地에서 小運送業者의合同機運이 擡頭하고잇서 目下朝鮮內 主要十驛에서 合同運送會社의 設立을圖하는 形勢이고 其他의 小驛에잇서서의 小運送店은 全部朝鮮運送에 買收될것으로觀測된다 그리고 合同運送에 對하여는 이미 小運送業者의共同計算機關인 丸計運輸가 朝鮮運送에買收된以上 朝鮮運送이過半數의投資를 하기로될모양이다

丸計買收

荻原朝運專務談

【釜山電話同盟】丸計買收를 協

古手帖에서 ⑪

銀行은典當鋪가 아니다

어떤사람이 銀行에와서 實力以上의 貸付를 해달라고 要求하엿다。銀行員이 말하되 그것은 너무額數가만흐니 될수업다고 拒絶하자 빗어드린이친구가 怒發하여 高聲日『돈이모자라니까 꾸러왓지 돈이잇스면 왜銀行에를오겟소 信用은 남에게 지지안코 信用貸付를 못하겟소』『銀行이 典當鋪가아닌限 信用貸付를 하는것이 當然치안코나 남의돈을 무서워할줄아는 사람에게는百萬圓을 融通해주어도조타。그래야만 銀行도 營業이될것이아니냐』고 銀行이 어떤것이라는것을 똑똑이 銀行員에게 도리어일러주엇다。푸念든고생각해보니 果然그러한지라要求대로 貸付하엿더니 期日에 回收가 잘되엇고 그사람의 信用은 一層 두터워젓다。

競賣恐怖病老人

어떤老人한분은 期日前날 반드시 빗을갑흐러오는 까닭에 利子를 거슬러주기가 구찬어서 銀行員이 한번은 은근히 諫햇다。영감님 어다음부터는 제발 期限날오셔오 미리오실것이 무엇입니까하엿더니 老人對答이 여보 그런말마오 사람의 일을 누가알겟소 期限날 病이나던지 무슨事故가 생겨 期限지나면 競賣當하겟스니 하로 압서치르는 것이 여간 조치안소하고 젊은사람의말을 잇지안는 이老人은 그後도 반드시 期日前에 銀行에와 다한다。萬事는 不如意인가 란말을 굿게지킨 이老人을 반드시웃지 안코는못할것이다。

騰賜하고 違變

便紙도말고 通知도말고할 行과는相關이업는줄 아는 [illegible] 내가銀行에 오게 [illegible] 말잇거던 단단히부탁한 [illegible] 사람이잇섯다。한번은 섬어나가지고와서 야단을치는데 開口一番『이銀行에서는 내가닌하기를조하하 [illegible] 여정이나섯습니까 무슨짤 못된 일이 잇던가요』『아여보 금새 그 것이 두 손지이 [illegible]

어알고잇는데 선사는무슨기 금할선사란말이오 銀行에서 선사오실 보고 父子間에대 말싸움이낫스니 이노릇을어 제하느냐고호령호령이다 아들이浮浪者란 술어서銀行에預金한것이 들어나게되엇스니 火가난모양이다。絶對秘密이어야할것이 러저낫스니 이銀行과는 다시말도하기실타고 預金을당장차저가겟다는바람에 혼이난銀行員들은 손이발이되도록 빌고謝過하느라고 애를무지썻다한다。이것은 勝賜하고逢變한이야기다。

財界秘話

三國志 (87)

韓龍雲 譯

熊超 畵

袁術과呂布 二

현덕이 사례하며 여포가 현덕을 청하여 자리에안지매 관장이 칼을가지고 현덕의 등뒤에 모시엇다。

사람이 보하되 기령이 온다하는지라 현덕이 놀래어 피하고자한데 여포가 말하되『내가 특별히 두분을 청하여 의론하고자 하는것이니 의심을 내지마소서』

현덕이 그뜻을 알지못하여 마음이 불안하더니 기령이 말에 나려 들어오다가 장막위에 현덕이 안진것을보고 크게놀래어 몸을빼어 돌아서는데 여러사람이 만류하여도 듯지안는지라 여포가 아프로가서 확잡고 돌리니 어린아이 따라오듯 하는지라 기령이 말하되

『장군이 나를 죽이고자 하느뇨』

『아니라』

『그러면 유비를 죽이고자 하느뇨』

『그런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찌하려느뇨』

『현덕은 나로 더부로 형제라 어제 장군에게 곤한바가 된고로 구원함이로라』

『그러면 나를 죽이라는것이로다』

『그럴이치가 업나니 나는 평생에 싸움을 조아하지안코오직 싸움을 풀기를 조아하는 지라 내가이제 양편을 위하여 화해하리라』

기령이 말하되

『그러면 이제 화해할 방법을 못노라』

『내가 한법이 잇으니 하늘에 서 결단하리라』

하고 기령을끌고 장막에 드러가 현덕과 서로보이니 두사람이 각각 의심을 품는지라 여포가 가운대에 안고 기령은 외인편에 현덕은 오른편에 안치고 잔치를 베푸러 술을마실새 술이 두어순배에 이르매 여포가 말하되

『그대들 양편이 나의낫을 보아서 각각 군사를 파하라』

현덕은 말이업고 기령이 말하되

『내가 주공의명을 바뜰고 십만대군을 거느려 전혀 유비를 잡고자 하거늘 어찌 군사를 파하리오』

장비가 크게노하야 칼을빼어 손에들고 꾸짓되

『우리는 비록 군사가 적으나 너의 무리를 아해와가치보는지라 너를 백만이나되는황건적에 비하면 어떠하뇨 네가감히 우리 형님을 상하겟느냐』

『네가 여장군의 처치가 어

처기를 가마히 냇더니 여포가 소매를 겨더부치고 서우에 살을 먹여 활을 가득히 다리고 한소리를 지르니 정히 활은가 을달에 하늘에 행하는것 갓고 화살은 흐르는 별이 땅에떠러지는것 갓더니 한살이정히 그 리창의 적은가지를 마치는지라 장막아래 여러 장교들이 소리를 가리하여 갈채하엿다。

여포가 그림창의 적은가지를 쏘아마치고 크게웃스며 활을땅에 던지고 현덕의 손을 잡으며

『이는 하늘이 양편의 군사를 파하게 함이라』

하고 군사로하여금 술을붓게 하여 각각 큰잔을 마시니 현덕은 가마히 부끄러운빛을 띄고 기령은 한참엇다가 여포에게 말하되

『장군의 말을 감히 좃지아니할수가 업스나 내가 도라가면 주인이 어찌 질겨여 멋으리오』

『내가 스스로 글을써서 보내리라』

술이 또 두어순배를 지나매 기령이 편지를 청하야 먼저 도라가는지라 여포가 현덕에게 말하되

『내가 아니엿든들 공이 위태할번 하엿도다』

현덕이 사례하고 관장으로 더부러 도라가니 이튿날에 세곳 군마가 다 흐터저서 현덕은 소패로 드러가고 여포는 서주로 도라갓다。

[illegible] 허엿을 보고서 나중에 각진에 도라가서 싸우는것이 늣지 안흐리다』

여포가 말하되

『내가 양편을 청하여 싸움을 풀게함이오 서로 싸우라 한것이 아니라』

하니 기령은 분한빗을 참지 못하고 장비는 달려들고자 하는지라 여포가 노하여 좌우를 명하여 창을 드니 기령과 현덕이 다 얼굴빛을 잃는지라 여포가 말하되

『내가 그대를 양편을 권하여 싸우지말라 하는것은 하늘의 명인배라』

하고 좌우를 명하여 창을 자저다가 원문밧게 멀리 꽂게 하고 현덕과 기령을 도라보며

『원문이 중군에서 일백오십보 라 내가 활로쏘아 한살로 그 창의 적은가지를 마치거든 그대들 양편에서 군사를 파하고 마일 마치지못하거든 각각 진에도라가 마음대로 싸우라』

기령은 나의말을 좃지안는자가 잇스면 힘을 합하여 막으리라』

기령이 가만히 생각하되 어찌능히 마칠리오 아직 마치지 못하거든 그때에 나의뜻대로 싸우리라』

하고 현업으로 허락하니 현덕이도 응락 하는지라 여포가 각각 안치고 술을 한잔씩 마신뒤에 여포가 활과 화살을 가저오라 하거늘 현덕이 쏘아마